

‘돌의 편’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고미술

현존하는 석조유물 총망라... 고미술의 또다른 단초 열어

한국미술사학의 원로로 손꼽히는 수묵 진홍섭박사가 천년의 불교시대를 겪으며 이뤄온 석조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학문적으로 정리한 「한국의 석조미술」을 펴냈다. 국내 현존하는 석조미술품을 통사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저술이란 점 말고도, 수십년 세월을 우리나라 고미술 연구에 바쳐온 한 학자의 역량이 ‘석조미술’로 총집결됐다는 점에서 이 책은 국내 미술사학계에 다시없는 보고로 기록될 만하다.

돌에도 생명이 있음은 천수백년전 선조의 손길로 빚어진 예술품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맑고 단단한 돌에 새긴 아름다움은 아마도 영겁의 세월에도 씻겨지지 않을 종교적 엄연과도 같다.

최근 한국미술사학의 원로로 손꼽히는 樹默 泰弘燮박사(78)가 돌에 표현된 바로 그 특별한 매력에 몰입돼 현존하는 석조유물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韓國의 石造美術」(문예출판사)을 내놓았다.

고대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물

이 책은 천년간의 불교시대를 겪으며 이뤄온 한국고미술을 ‘돌의 편’에서 통사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석탑 석불 부도 석등 석비 등 개별적 연구들을 ‘석조미술’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뚫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고대 미술사의 또다른 획을 긋는 성과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남달리 돌을 사랑했습니다.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한국 천혜의 재료인 투명하고 치밀한 화강암을 예배의 대상으로 제작한 예술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미술 가운데 석조 미술품이 차지하는 양은 상당하지요. 돌을 사용한 미술작품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료에서 오는 감각이나, 한국인의 미에 대한 해석과 조형능력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특색을 풍깁니다. 석조미술품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밀착된 아름다움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아름답게 표현된 석조물에 관해선 모두 거론해 보려고 했는데 같은 석조미술이라도 돌의 종류에 따른 특성이나 돌을 다듬는 과정, 연장들처럼 아직도 구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다른 과제로 남은 셈이지요. 돌을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던 선인들의 심정을 느끼고, 석조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면 이 책을 쓴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한국의 석조미술」은 크게 1장에서 석조미술의 연혁과 연구과정, 분포 및 종류를 ‘총론’으로 살피고 ‘석조유물의 각명’을 2장에, 석탑 석불 부도 석비 석등 기타 ‘석조미술품’을 각론으로 살핀 글들을 3장에 나눠 정리했다. 진홍섭박사의 전공이던 불교미술의 상당부분이 석조미술이라 「석불」 「탑과」 등의 저서와 함께 그간의 연구업적까지 고스란히 이 책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수십년 세월을



수묵 진홍섭박사.

우리나라 고미술연구에 바쳐온 고고한 학자의 역량이 ‘석조미술’로 총집결됐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국내미술사학계에 다시없는 보고로 기록될 만하다.

맑고 치밀한 한국 석조미술의 특성

우리나라 석조미술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된다. 금속이나 나무 흙 같이 다루기 쉬운 재료에 비해 돌은 단단하고 거친 재료임에도 석조유물이 보여주는 표정이나 양감의 표현은 아주 뛰어나다. 특히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 화강암은 맑고 투명하며 치밀한 견고함의 특성을 지녀 한국만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많다.

진홍섭박사는 이러한 애정어린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석조미술을 연구한다. 예컨대, 석탑의 경우 불교적 사상배경의 고찰과 함께 건축학적 조명, 탑신과 기단에 조각된 여러가지 표면장엄의 조각수법 등 광범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체와 표정까지 표현해야 하는 석불의 경우엔 지역별 표현수법의 차이, 양각과 음각수법 등이 나타내는 조각적 효과에 대한 관심도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부도, 석등, 석교, 석수 등의 시대별 양식변천이라는 다른 유물과의 비교연구 같은 것도 좀더 세심하고 깊이있게 연구될 분야입니다. 만들어진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하나의 미술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작품완성의 길을 걸었는지까지 부문별 연구로 심화 확대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박사의 방법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가령,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1000여기가 넘는 석탑에 관해 다른 불교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불교건축물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까지 이른다. 평면방형을 기본으로 하고 상하 2층기단 위에 층층이 탑신을 쌓아올리는 전형양식이 신라석탑에서 나타나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약간씩의 변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전형양식을 완전히 벗어난 ‘불국사다보탑’ ‘화엄사 사사자 3층석탑’ ‘경천사 심층석탑’ 등의 특수형식이 나타난다는 것. 한국의 석탑은 ‘감은사탑’처럼 담대하여 인간을 압도할 듯한 아름다움과 ‘실상사백장암탑’처럼 3층탑 전면조각의 섬세함이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음을 포착해내고 있다.

한국석탑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표면의 장엄조각이 있다. 원래 장엄조각은 부처사리가 내장돼 있다는 불타신앙에서 출발, 불보살이나 사천왕 인왕 등이 주가 됐지만 점차 장식성이 많아지다가 급기야 불교와는 무관한 眼象이나 梵字까지 각자되기도 했음을 밝혀낸다.

한편 진박사는 또 전형적인 한국석탑의 양식에서 벗어난 선산군의 桃李寺석탑이 전혀 유례를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의 석탑을 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또 과연 불탑으로 조립된 것인지의 성격규명은 진박사의 각론연구 중 하나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결국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직접 현장답사하고 관계문헌을 모조리 뒤적여 찾아낸 석불

대주신제국사

賞 大朝鮮帝國史
한국문화문화상 수상

한국인 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우리 역사 -
올바른 역사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보급판

대한의 젊은이여, 「대주신제국사」를 읽고 민족중흥의 역군이 되십시오.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웅대한 기상을 드높였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찬란한 우리 민족사 - 이제, 「대주신제국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장엄한 민족의 기개를 바로세워야 할 때입니다.

- 장서판 : 90,000원 (전3권)
- 보급판 : 29,400원 (전3권)
- 날권판에 가능 (각권 9,800원)

국내 최초의 회화극본
산 호 글/그림



장서판



석탑 부도 석등 석비 석수 하나하나의 시대적 배경과 양식특성이 이렇듯 집약돼 있다.

고미술과 함께 한 외로운 나날들

경기도 개성 태생으로 일본 메이지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했지만 고려 도읍지였던 개성의 장려한 풍물은 이미 진박사 내면에 들어앉았던 듯하다. 유적이 산과 들에 널려 있던 개성에 마침 고미술학의 대가인 高裕燮씨가 개성 박물관장으로 10년 남짓 머물면서 진박사의 일생은 결정돼버렸다.

고유섭씨를 스승으로 하는 3대 한국미술학자, 황수영 최순우 그리고 진홍섭박사가 모두 개성 출신임이 우연만은 아닌 듯하다. 진박사는 방학 때 일본에서 경주를 들러 개성에 올 때마다 그 많은 유적들이 되살아나 함께 '교감'을 나눴던 시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개성의 술한 귀중한 유물들을 접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고미술과 함께하는 길로 접어들면서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과 이화여대 동아대 교수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미술사학회 이사를 지내고 있지만 한국미술과 함께 한 지난 세월이 사실 외로움과 악전고투의 나날이었음을 고백한다. 사소한 유물 하나라도 하루 50, 60리 길을 걸어가 직접 실측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에 누구 하나 지원해주지 않았다. 관계문헌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학 자료를 모두 꿰뚫고 있어야 함에도 자료 한번 마음껏 볼 수도 없었다는 얘기가. 미술사를 공부했던 동학들만이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 외로움이 무엇보다 제일 힘들

었다는 것이다.

“5천년 문화민족이라고들 하지만 하기 좋아서 하는 말일 뿐 문화유산과 전통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문화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는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개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술사 공부는 곧 자료공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천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분명히 자료분실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학문의 진전이 없겠지요.”

막상 자신의 외로웠던 학문의 길을 후학들에게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학동'의 대물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진박사의 외아들인 華秀씨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실에 근무하면서 도자사를 공부하고 있어 보상되는 셈이지만 막상 진박사는 “편리할 때가 많다”는 한마디로 그친다.

“튼실한 기초자료 만들 터”

이제 진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작업해 오던 「한국미술사자료집성」(전3권)을 필생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다.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학문이기에 이 작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듯 우리나라 미술사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기본자료가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에 꼼꼼히 모으다 보니 아직 고려 중기와 후기까지밖에 정리가 안됐는데, 조선말기까지 곧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힘이 닿는다면 고미술 관련 사례 용어집이나 사전 같은 기초자료도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일본자료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한 민족적 자존심을 후학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요즘엔 좋아하던 술 담배도 멀리하고 가끔 산에 오르며 건강을 지키는 진박사는 지난해 일었던 우리문화 유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전한다. “유물 앞에서 5분 동안만 가만히 들여다 보라, 유물이 나에게 말을 걸고 나 스스로 대답하고 있음을 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감정의 영역이 전국민에게 확대된다면 5천년 문화유산은 결코 그대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신앙같은 당부의 말이다.

—김지원 기자

유머와 해학이 담긴
대하 역사 만화소설

고우영 만화 십팔사략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서미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역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신자가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역사의 술한 인간상들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발견하십시오.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으로 펼쳐가는 「만화 십팔사략」-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각권 5,000원



1, 2, 3권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